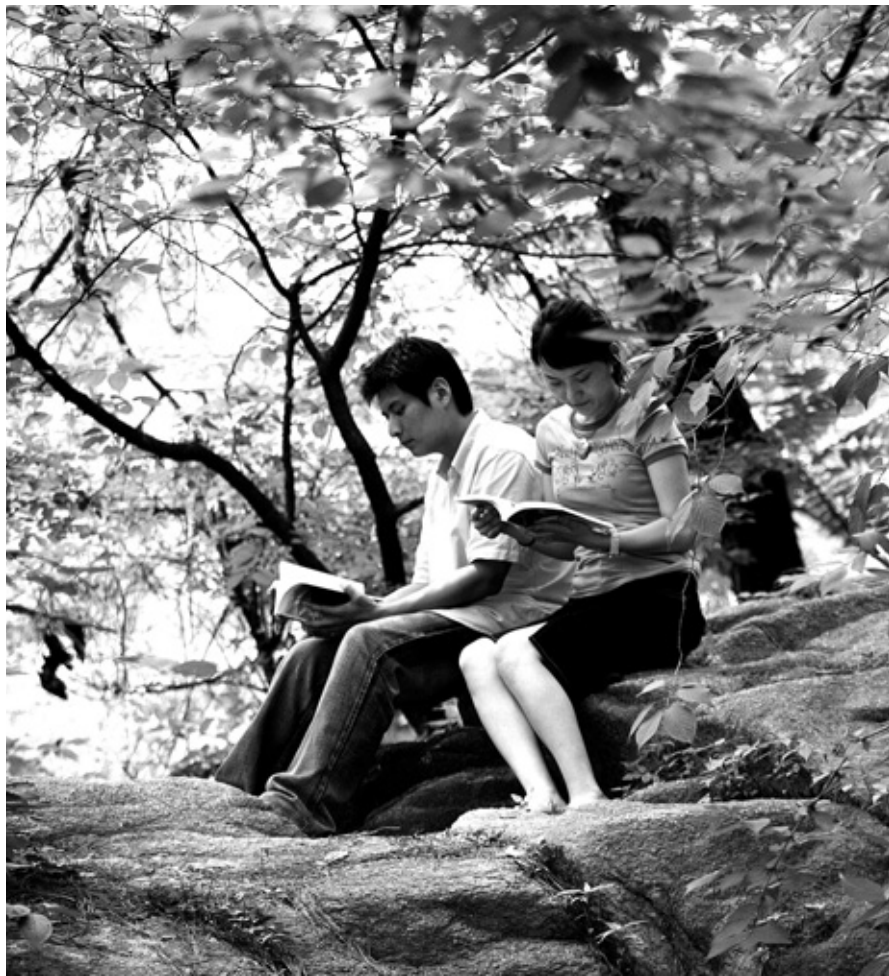


# 불교출판인이 추천한 ‘올여름 휴가지에서는 이 책을...’



##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인도미술사 | 미야지 아카라 지음 | 김형숙 · 고정은 옮김 | 다할미디어 펴냄 | 1만8000원

통사적인 입장에서 인도미술사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인도미술이 어떻게 형성, 변화, 발전했는가를 탐구했다.

부록에 사진과 도면 목록을 수록해 인도미술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윤창화 대표는 “물론 인도미술이라고 한다면 불교·힌두교·이슬람 미술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불교 미술이 50%를 차지한다. 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독자들이 읽기에 좋다”고 말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천왕 발밑에 깔려서 곧 죽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악귀이다. 이 조각은 사천왕의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폭소가 나오기도 한다. 불교미술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붓다와 명상 | 임승택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2000원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 서술된 책이다. 근래 위빠사나 수행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각 지도자마다 조금씩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유는 경전에 바탕하기보다 주관적인 체험 위주로 지도하기 때문이다. 책은 붓다로부터 기원하고 있는 유래와 갈래, 명상의 교리적 철학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불전에 바탕해 서술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불교미술의 해학 | 권중서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8000원

불교미술품 속에 들어 있는 해학적으로 풀어진 책이다. 종교미술, 불교미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엄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찰의 구성구석을 눈여겨보면 조형물에는 해학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화제의 신간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 월, 일, 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길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된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독일이 보인다 | 新 사주학 핵심비결 |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전국 서점 판매중!

功念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 송월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 4x6배판/高山 영장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그림 당사주 대전 |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풍수 양택통론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680쪽/각 권 50,000원 | 신국판/양장본/신경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음 스님

선방일기 | 지허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9800원  
법정 스님의 수필과 더불어 30년 넘게 불교계 최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지허 스님의 책이다. 모두 2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전개되며 절저히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선승(禪僧)의 존재감과 눈물나게 인간적인 수행자의 두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종교나 연령을 초월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스님은 사춘기 | 명진 지음 | 이출 펴냄 | 1만3000원  
책은 명진 스님이 봉은사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일요 법회 때마다 신도들에게 범문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났고, 그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40년 동안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어온 명진 스님. 스님은 ‘마음에서 힘을 빼라!’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오랫동안 익혀온 지식과 정보, 길들여져 있던 습관, 이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 말한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참선은 신비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요, 깊은 산중의 선방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하고 물으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수행이라고 말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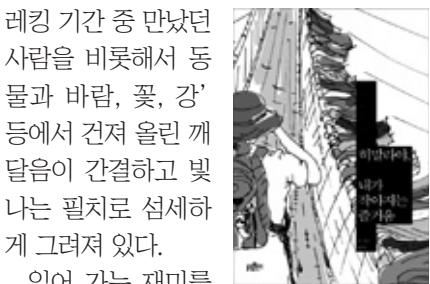
## 사기순 불광출판사 편집부장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 법상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800원

그동안 수행과 명상, 자연과 여행을 주제로 쓴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법상 스님의 히말라야 콤파트 트레킹의 내용을 담았다.

법상 스님의 여행기인 이 책은 편의시설도 거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야생의 산속을, 그것도 해발 3000~5500m의 높은 설산의 기슭이나 봉우리까지 직접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걸어 올라가며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삶에 대한 지혜로운 사유와 사색을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섬세하게 담아냈다.

여행서이자 삶의 지혜를 얻어주는 최고의 인생가이드북이란 생각이 든다. 하루 하루 일기를 써내려가듯,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트레킹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 ‘홀로 걷는 트레킹을 통해 명상하는 법’ ‘히말라야에서 만난 대자연의 장관’ ‘트



레킹 기간 중 만났던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과 바람, 꽃, 강 등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이 간결하고 빛나는 필치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읽어 가는 재미를 만끽하면서 스님을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마치 히말라야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이 든다. 스님이 직접 담아 온 히말라야의 자연, 사람, 꽃, 동물 등 150여 컷의 사진도 생생한 감동을 더해준다. 또한 부록에 ‘법상 스님께 묻는 트레킹Q&A’는 트레킹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히말라야를 꿈꾸는 이들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통해 히말라야의 행복한 일상을 전해주고 있다.

## 김시열 불교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 운주사 대표

선의 황금시대 | 오경운 지음 | 김연수 옮김 | 한문화 펴냄 | 1만5000원

인간 정신의 위대한 경지를 보여준 선의 역사와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다. 달마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선의 황금기 선문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이란 깨달음에 대한 중국식 해석이다. 그리고 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 존재의 중심에 깊이 닿을 수 있는 내적인 지각 능력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김시열 불출협 사무국장은 “그야말로 선의 황금시대를 연 당송대 선사들의 삶과, 선에 내재돼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선의 근본정신을 보여주는 책이다. 선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해주며, 특히 이런 선에 대한 설명이 재밌게 설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강조했다.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범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4500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범륜 스님은 그 해답을 부처님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2010년 지금,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해답이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에 담겨있다.

책은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그의 삶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불교에 문외한인 초보자들에게도 유익하다.

김시열 사무국장은 “범륜 스님은 청년들이 가장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스님이다. 수행과 신행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범륜 스님이 지은 이 책은 자기 삶의 모태고 되고 있는 붓다의 모습,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삶과 교인, 사상 등이 누구나 읽기 쉽게 엮여져 있다”며 추천이유를 밝혔다.

## 최승천 한국불교언론인 후원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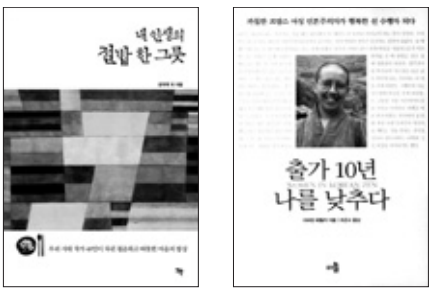
들음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 목경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저자 목경찬 선생이 초보불자 신행일문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대중 불교서적이다. ‘불교문화 에피소드’라는 부제와 같이 사찰 관련 이야기들을 풍자와 비유를 곁들이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또한 남다른 신심으로 사찰을 재해석해 봤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머리가 아닌, 발로 쓴 글이라 책을 읽다 보면 이야기 현장에 마치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내 인생의 절망 한 그릇 | 성석제 외 49인 지음 | 뜨란 펴냄 | 1만2800원

소설가 성석제, 구유석 등과 시인 이해인, 수녀, 신달자 등 모두 49인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저마다 다양한 사연과 다채로운 감동을 전해준다. 종교를 떠나 밤 한 그릇의 소중함, 소박한 마음이 주는 평온함 등 절망을 마주하며 느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최승천 위원장은 “정갈하고 따뜻한 절망을 앞에 두고 소유와 존재, 자비와 생명,



비움과 충만함에 대해 성찰한 글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며 “종교를 떠나 절망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감동이 깃들여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사찰 사진 전문가 하지권의 아름다운 절집 풍경도 아름답다”고 말했다.

출가 10년 나를 낫추다 | 마르틴 배철러 지음 | 들 펴냄 | 1만2000원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10년간 출가생활을 한 프랑스 여성의 수행기다. 서양 여성이 한국의 비구니가 돼 남긴 글은 흔하지 않다. 한국 비구니들의 은둔성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치열한 비구니 수행 전통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게도 했다. 역자에 따르면 미국의 불교학도들이 “대대적 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감탄하면서 읽을 만큼 독보적인 책으로 기록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